

##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김 영 윤\*

###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암시장 거래와 북한경제의 시장화 가능성 |
| II. 북한의 지하경제와 암시장    |                          |
| III. 북한 암시장의 실태      | VI. 결 론                  |
| IV. 북한 암시장의 역할과 파급효과 |                          |

### I. 서 론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국가의 공식 배급체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가. 북한이 당면한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는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 바탕을 둔 공식부문이 아닌 비공식부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갖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제2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경제」<sup>1)</sup>에 의해 유지되고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하경제」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암시장 거래에 대해 고찰하고 암시장의 확산이 북한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암시장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이유는 암시장이 북한의 지하경제의 형태중 북한 주민의 생활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으며, 비공식부문의 활동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실태에 대해 서술해 놓은 문헌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거나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북한 공식부문의 경제에 대해서도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경제인 암시장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자료의 부족과 취득된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증언이나 북한을 방문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이라는 것도 자기 주변생활에 관련된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방문자의 방문목적 역시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한정된 지역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북한 암시장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암시장과 어떻게 연결·유지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 
- 1) 지하경제의 개념은 이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는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제(informal, unofficial economy), 암흑경제(black, moonlighting economy), 제2경제(second economy), 은폐경제(hidden, concealed economy), 비관측 경제(unobserved economy), 범죄경제(criminal economy), 변칙 경제(illegal, irregular economy) 및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등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한 지하경제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최광,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7), pp. 7~11 참조.

먼저 북한 사회주의체제하의 지하경제 형태에 대해 언급하고 암시장의 형성배경과 전개과정 및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내용 등 암시장의 실태에 대해 기술한다. 그 다음 암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암시장의 확대가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지하경제와 암시장

사회주의 국가의 지하경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행해졌던 소련이나 헝가리 및 기타 동유럽 국가들의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계성과 적실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국가가 아닌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확대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동유럽 국가의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따른 국민소득 규모와 관련된 산출을 위해서는 지하경제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활발해지고 있는 형편이다.<sup>2)</sup>

사회주의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법적((legal)<sup>3)</sup>, 도덕적(moral),<sup>4)</sup> 제도적(institutional),<sup>5)</sup> 수량적(quantitative) 기준(criteria)<sup>6)</sup> 등 몇 가지 기

2) 이에 대해서는 1996년 4월 30일에서 5월 3일까지 열린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과 Eurostat 및 OECD 공동주최 National Accounts에 대한 회의를 참조하기 바람.

3) 미 국무청은 지하경제를 불법경제(illegal economy)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로 구분하고 불법경제는 매춘, 도박, 마약밀매, 금품강탈, 횡령 등과 같은 법에 반하는 활동이고 비공식경제의 활동은 법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이지만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전혀 보고되지 않는 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4) 비합리적인 활동과 경제 도덕성에 반하는 활동. 이에 대해서는 Wiles, P., "The Second Economy, Its Definitional Problems," in S. Alessandrini and B. Dallago(eds.), *The Unofficial Economy* (aldershot : Gower, 1987), pp. 21~33 참조.

5) 이는 공식 기록이나 통계치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서 화이거(E. Feige) 교수는 "현 경제사회에서 측정할 수 없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지하경제를 매우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는데, 보고되지 않은 경제활동과 사회가 공식적으

준으로 정의되는데 로스(M. Los)는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하경제를 이념적(ideological) 측면을 추가하여 파악하고 있다. 로스는 법적 기준에 의한 구분은 너무 그 범위가 좁다는 데서, 이념적 기준은 너무 상대적이며, 제도적인 기준에 의한 개념 정립은 그것이 너무 관료적인 경향을 띠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수량적 기준도 실제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대상은 고찰할 수 없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7)</sup>

로스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의한 지하경제는 “공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 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이에 따를 경우 지하경제는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이라도 사회주의 이념상 의심받을 수 있거나 공적인 경제활동과 비교하여 이념적으로 차별화되거나 열등한 위치를 점하는 경제활동 전체가 포함된다.<sup>9)</sup>

이상에서 볼 때,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undeclared legal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둘째,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

로 계측하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일체의 활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사노동도 지하경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Feige, E., “The Anatomy of the Underground Economy,” in S. Alessandrini and B. Dallago (eds.), *op. cit.*, pp. 83~106.

6) 이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측정 또는 산출 가능하나 아직 계상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다. 이는 탄지(V. Tanzi)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데, 그는 지하경제를 “미보고 또는 과소 보고 등 불성실 보고로 인해 정부의 공식적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총생산”으로 보고 있다. 최광, 앞의 책, p. 8에서 재인용.

7) 실제로 있어서 경제활동을 모두 계측할 수 없다. 따라서 계측되지 않은 경제가 반드시 지하경제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하경제활동이라고 하여 국민소득의 계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당수의 지하경제활동이 이미 공식적 국민소득 계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8) Los, M., “Introduction,” in M. Los(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0), pp. 2~3.

9) 그러나 흔히 지하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가사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production of illegal goods and services), 셋째, 은폐된 현물소득(concealed income in kind)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텃밭을 통한 자가재배 생산물의 판매는 그것이 합법적이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산출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경제로 파악하여야 하며, 생산활동 자체를 감추거나 밀수, 도박, 노점상, 마약거래, 매춘, 사채거래, 무허가 임대 등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활동 등도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또한 횡령, 절도, 뇌물수수 등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과 같이 생산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서 지하경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지하경제가 생성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체로 첫째,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즉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둘째,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개입이나 규제가 높을수록 지하경제에의 참여동기가 커지게 된다. 즉 경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 내부의 힘이 규제의 목적을 무용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이 지하경제의 생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 연령, 기타 여러 기준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혜택의 수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거나 불법적인 자료를 제시하려는 경향이 높다. 넷째, 관료의 부패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할 것 없이 일부 계층의 관료들은 얼마간의 권력을 지배하고 이를 행사

10) 이는 직접적인 사적 이익과 실정법 위반의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11) 전홍택도 지하경제를 제2경제로 지칭하면서 이를 계획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텃밭 경작과 가내부업이 북한의 공식통계에 기록되지만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자율적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또는 추가 소득을 창출하든 단순히 기존의 소득을 재분배하든 모두 제2경제 부문의 경제행위라고 보고 있다. 전홍택, “북한의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통권 제26호(서울: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2, p. 48ff.

함으로써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공권력을 개인적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돈을 받고 공직을 팔거나, 정부계약 체결시의 뇌물수수행위, 특정면허의 취득 또는 인허가 관련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한 뇌물수수 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쉽다. 마지막으로 지하경제가 제공하는 자유감, 자치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도 지하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지하경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하경제 덕분에 경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하경제가 성행했다.<sup>12)</sup>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도 자본주의 지하경제 생성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는 등 사회 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하경제가 번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난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적인 욕구충족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그 자체적 비효율성으로 부족경제(economy of shortage)를 유발하고 이를 공적인 국가경제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지하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경제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생산, 유통, 금융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생산분야에서는 텃밭<sup>13)</sup> 및 폐기밭 농사<sup>14)</sup>와 같은 개인농을

12) I. Kemeny, "The Unregistered Economy in Hungary," *Soviet Studies*, vol. 34, no. 3 (1982), pp. 349~366.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23에서 재인용.

13) 북한주민들은 집 근처 30평 남짓되는 땅을 이용하여 제한된 농작물을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텃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북한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24조에는 텃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개인소유에 속하며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하고 이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텃밭에는 채소 및 양념만 심게할 뿐 곡물은 재배하지 못하게 했다.

14) 폐기밭 농사는 텃밭 농사와 달리 계곡이나 언덕의 공터 등을 이용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그 규모가 적게는 1백평에서 많게는 1천평에 이른다. 북한 당국은 폐기밭 농사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에 크게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60평

비롯하여 부업이나 지하생산을 들 수 있으며, 유통분야에서는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서의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매매 등도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금융분야에서의 지하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채나 외화벌이 등을 비롯한 돈놀이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매춘행위를 비롯하여 압표상 행위, 공용물자의 절취 및 횡령 등도 지하경제 활동에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지하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암시장<sup>15)</sup> 거래를 중심으로 지하경제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북한 암시장의 실태

#### 1. 암시장의 발생 및 전개과정

해방 후 북한에서는 「노동법령」,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반 경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빈농들이 토지를 분배받아 그들의 신분이 무산계급에서 유산계급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의 증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자유처분할 수 있는 곡물은 개인 상인들에 의해 매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매점매석 행위로 이어져 쌀값 폭등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강압적 통제 조치를 발휘하여 일정량 이상의 곡물을 보관할 경우, 그 초과분을 무상몰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의 반작용으

---

정도의 폐기발만 일귀 농사를 지을 경우 일년간 직장에 다니며 배급받는 양보다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하루분 정규 배급량은 7백 내지 8백그램으로 일년이면 250킬로그램인데, 북한에서 개발한 옥수수 개량종을 60평에 심고 1년에 1주일만 노동력을 투입하면 그 정도의 생산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북한 이탈 주민 이민복 증언, 「북한」 4, 1996, pp. 32~45.

15) 본고에서 언급하는 암시장의 개념에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농민시장에서의 비합리적인 거래까지도 포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로 곡물 암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곡물은 구매력이 약한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지로 밀반출되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생산물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개인 암거래 상인들은 몰락하고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다. 가끔 개인 상인들과 일부 군인들이 결탁하여 군용물자를 횡령하여 암거래를 하였으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그것마저도 끊어졌다. 전후에는 물자가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중공군의 물자가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이때부터 중국 화교들이 암거래를 주로 도맡아 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긴급원조를 시작하자 그와 같은 물자도 암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후 1950년대 중반부터 모든 산업의 국유화 조치와 농업과 상업의 협동화는 암시장의 존재 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는데, 대부분의 화교들은 북·중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당국의 통제 속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개인 「암시장 유통업자」들은 산간오지로 추방되었다.

이와 함께 1950년대 후반 일명 장마당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암시장인 농민시장이 생겨났다. 농민시장은 협동농장의 공동경영과 협동농장농민의 개인 부업경영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직접 주민에게 판매하는 상업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sup>16)</sup>으로서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거하여 이전에 있었던 「농촌시장」을 폐지하고 만든 것이다. 북한은 당시 국영 및 협동단체가 모든 유통체계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간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규모도 1개군에 1~2개소를 지정하여 월 3회(1일, 11일, 21일)로 제한하였다.

농민시장은 협동경영과 개인 부업생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거래 형태 및 가격결정 면에서 볼 때, 시장경제적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왜냐 하면 농민시장에서의

16) 고뢰정, 「북한경제입문」, 이남현 옮김, (서울:청년사, 1988), p. 56.

17) 위의 책, p. 56.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즉 가격결정의 자유화에 의한 시장가격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농민시장을 통한 시장경제적 잔재가 남아 있는 이유는 북한에서 협동경영과 함께 개인 부업경영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 대중의 물질적·문화적 욕구를 전면적으로 충족할 만큼의 사회생산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에서도 농민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가가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 특히 생필품과 부식물을 충분히 대중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농민시장의 존재는 대중의 생활에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록 ‘그 방법은 후진적이지만 선진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후진적 방법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통해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체제의 과도적 변화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8)</sup>

1959년부터 시작된 재일동포의 북송사업은 북한 암시장을 질적·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일동포 북송사업이전 북한에는 중국, 소련의 경공업 제품밖에 없었으나,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일본 상품들이 유입되었다. 북송교포들은 식품을 필요로 한 반면, 북한 주민들은 시계, 양복 천 등의 수요가 컸다. 그러나 실수요자 사이에 유통업자를 통한 거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1:1의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sup>19)</sup>

북송교포들의 일본 상품 가격이 일시에 폭락한 때가 있었는데, 1968년 미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조시킴으로써 이에 불안을 느낀 북송교포들이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한꺼번에 암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송교포들은 일본 상품을 농산물등과 물물교환 하지 않고 북한 화폐와 바꾸려고 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화폐가 암시장 거래 수단으로 통용되었는데, 북송교포들은 전쟁이 날 경우 북한돈으로 바꾸어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벌이 운동이 전개되고 외화 상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송교포들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외화가 활발

18) 위의 책, p. 57.

19) 김영윤, “북한의 지하경제와 주민생활,” 「북한」 296호 (1996.8), pp. 86~95.

하게 유입되었으며, 북한 화폐와 외화간의 암거래가 활발해졌다. 현재 외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 암시장 거래형태 및 외화와 북한 화폐 사이의 환율은 그 당시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들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대형 건축물 건설 등 비생산적인 시설투자 확대와 군비확장에 따라 북한 경제는 파행적인 발전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기본적인 주민생활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소련, 중국 등지로의 농수산물 수출이 암시장 가격을 급상승시켰다. 화교들의 암시장에서의 활동범위가 넓어졌으며, 「유통업자」들의 대부분이 화교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개방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지대 각 도, 군에서 인접 중국 연변지역과의 거래가 활기를 띠자 중국의 교포상인들이 자국의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북한의 골동품, 해산물 등으로 바꾸는 물물 교환식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1984년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통하여 가내수공업을 장려하면서 약간의 개인화가 허락된 것도 개인부업과 물물교환이 활성화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암시장은 대체로 90년대 들어 크게 재확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생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난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협동농장과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그동안 물물교환에 크게 의존했던 대외교역에 큰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북한 생산품의 해외 판로와 원부자재를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농민시장은 1989년부터 매일장으로 바뀌었으며 비인가 시장인 암시장도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2년 들어 비인가 시장이 폐쇄되고 다시 10일장이 서게 되었으나 식량난이 심화되자 1993년 3월 다시 매일장이 서게 되었다.<sup>20)</sup> 농민시장은 원래 시외곽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목 좋은 곳이면 어디서나 암시

20) 전홍택, 앞의 논문, p. 54.

장이 생겨나 물건 사고팔기와 물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주택가에서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역전이나 도회지 중심가의 뒷골목에서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의 반짝시장이 선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의 경제특구지정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의 합의하에 중국 훈춘과 나진·선봉특구의 원정리를 연결하는 원정교 주변에 외국인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해 남한 등 세계 모든 나라와의 일반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대외 식량교역 창구로서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 1정보의 면적에 울타리를 치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부대시설도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북한내 기업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대만, 홍콩 등의 외국기업이 중심이 되어 50~100여개의 매장을 갖추고 북한 중앙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sup>21)</sup>

시장은 매주 월·수·금요일 주 세차례 열리며 시장 반경 30km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에 중국인민폐 5천위안(元)까지는 관세나 별도 신고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로 북한기업이 수산물, 골동품과 기타 비철금속제품을 중심으로 내다팔고 중국과 기타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여온 곡물 및 각종 식료품 등과 물물교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자유시장을 개설한 것은 중국과 북한간의 국경무역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그 동안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성행해온 양국간의 밀무역을 합법적·제도적인 거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지대의 외국투자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쪽에서 볼 때 연간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중·북한 밀무역이 성행함으로써 골동품·귀금속 등 주요물자들이 헐값에 중국쪽 상인들을 통해 불법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중국쪽에서는 연변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상인들이 북한 밀무역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가

21) 「한겨레신문」, 97. 6. 3.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식을 구하려는 북한 주민들의 잦은 중국 왕래와 북한산 아편의 유입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자유시장개설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圖們, 三合, 崇善 등에도 이와 같은 시장을 개설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무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 2. 암시장 거래 실태

### 가. 거래 품목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품목은 쌀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비롯하여 간장, 된장, 돼지고기 등 식료품과 설탕이나, 비누, 치약 등 생필품과 함께 신발, 양말, 옷가지, 기타 술이나 담배, 화장품, 학용품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되는 품목은 낮과 밤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낮에는 주로 식료품, 의류, 신발류 등 생활필수품이, 밤에는 식료품이 취급되는 품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낮에 서는 장마당을 ‘햇빛회사’, 밤에 서는 장마당을 ‘달빛회사’라고 구분해 부르고 있다.<sup>22)</sup>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단일 품목은 옥수수다. 옥수수는 텃밭이나 폐기밭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공산품과 바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농민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나타난 중대 변화로 금지품목이었던 식량매매가 허용된 데서 기인한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992년초 남포에서 시작된 농민시장에서의 식량매매는 1994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sup>23)</sup> 이는 3~6개월, 다시 말해 6~12회분의 식량배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하자 북한 당국이 식량매매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

22) 「연합통신」, 97.5.27.

로 풀이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옷, 양말, 생활필수품 등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도 많다. 중국교포와의 암거래는 일반적으로 방문목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은 다음, 중국에서 올 때 휴대물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여 팔거나 국경지역인 무산, 회령, 은성 등지에서 몰래 도강하여 암거래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근무한 뒤 텔레비전, 카세트 녹음기, 재봉틀에서 치약, 칫솔, 비누, 식량, 설탕 등을 능력껏 꾸려와 수십배의 이익을 남겨 팔기도 한다.<sup>24)</sup>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의 공급원을 대별하면 첫째, 주로 직장에서 좀도둑질한 것이나 둘째, 각 지방별 특산물을 다른 지방에서 옮겨온 것을 비롯하여 셋째, 외교관, 선원, 운동선수, 학자, 관리인, 기업인 등이 해외여행에서 획득한 물품을 비싸게 팔거나, 밀수를 통해 중국 및 외국에서 유입한 것<sup>25)</sup> 넷째, 국영상점에서 싸게 산 물건 및 외화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국영상점이나 상업관리소에 근무하는 자를 통해서 당국의 공급가격으로 물건을 빼돌린 뒤, 큰 차액을 남겨 팔아치우고 그 판매 수익으로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26)</sup>

23) 남북문제연구소,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7), p. 14.

24) 이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와 국내에서 이익을 덧붙여 파는 것을 볼 때 북한내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화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북한 원화가 크게 효용가치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2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 1995), p. 277. 양강도 혜산시 등 중국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유색금속과 중국 식량을 물물교환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주석, 구리 등을 연변 중국동포들이 반입하는 쌀, 밀가루, 담배, 생필품 등과 바꾸는 것이다. 보파리 장수들은 지역간 물건값 차이를 이용, 돈을 번다. 이들은 식량이나 특산·공산품 등을 배낭에 갖고 다니면서 타지방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특히 국경지역에서 사서 해변쪽으로 가 팔면 3천~4천원 정도를 벌 정도로 수지가 맞는다고 한다. 보파리 장수의 가장 인기품목은 중국산 담배다.

26) 이런 행위를 하다가 사회안전부 요원들에게 발각되면 당사자는 물론, 물품 공급자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심하면 산간오지로 쫓겨나기까지 하는데, 최근에 워낙 이런 부

## 나. 암시장 가격

암시장 가격은 지역과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료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의 20배에서 1,000배 이상의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용품도 마찬가지로 세탁비누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의 10배 내지 14배 정도에 달하나, 설탕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커 1,000배 이상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는 양복이나 단복의 경우 그 수요가 크지 않아 4~6배 정도이다. 그러나 운동화는 국정가격의 700배 이상으로 그 수요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맥주의 암시장 가격이 국정가격의 수천배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인데, 이는 맥주가 그 만큼 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민시장의 가격형성은 실제로 화폐의 양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에서 화폐가 생산된 모든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만큼 발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으로 바꾸려고 해도 생산된 재화가 항상 모자라기<sup>27)</sup> 때문에 인플레이션 성향이 높다. 공식부문에서는 가격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압된 인플레이션 심리는 비공식 부문인 암시장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암시장 물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그 만큼 물품 공급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90년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국정가격으로 1kg당 8전하는 쌀은 1992~93

류의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단속하기에 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평양의 송신동 인근에는 도둑질한 물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개시장까지 생겨나 번창하고 있다고 한다.

27) 북한 주민은 “돈은 늘 똑같이 받는데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면 늘 물건은 모자란다. 때문에 필요없는 돈만 남게 된다”고 불만을 나타낸다고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 정덕성, 「북녘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남북문제연구소, 시사문제 시리즈 26), p. 35.

〈표 1〉 북한 암시장 가격

| 분 야 | 품 목                | 국정가격     | 암시장 가격       |
|-----|--------------------|----------|--------------|
| 식료품 | 쌀(1kg)             | 7전       | 23~28원       |
|     | 옥수수(1kg)           | 5전       | 10~12원       |
|     | 간장(1kg)            | 18전      | —            |
|     | 된장(1kg)            | 15전      | —            |
|     | 돼지고기(1kg)          | 4원       | 43원~48원      |
|     | 계란(1개)             | 25전      | 3~5원         |
|     | 명태(1마리)            | —        | —            |
|     | 사과(1kg)            | 50전      | 10원이상        |
|     | 건고추(1kg)           | —        | 60~90원       |
|     | 식용유(1kg)           | 4원       | 40~45원       |
|     | 알사탕(500그램, 약 150알) | 2원       | 1알에 50전      |
| 일용품 | 설탕(1kg)            | 4원       | 45~50원       |
|     | 세탁비누(1개)           | 50전      | 5~7원         |
|     | 공책(학생용 1권)         | 25전      | 1.5원~3원      |
|     | 만년필(1개)            | 3.5전~10원 | 7~25원        |
|     | 치약(1개)             | 1.5전     | 3원           |
|     | 크림(화장품1개)          | 1원       | 3~4원         |
| 의 류 | 양복지(1벌)            | 120원     | 500~600원     |
|     | 단복(체육복 1벌)         | 150원     | 500~600원     |
|     | 양말(혼방, 1켤레)        | 80전~1원   | 5원이상         |
|     | 운동화(국산, 1켤레)       | 3.5원     | 25~30원       |
|     | 운동화(중국산, 1켤레)      | —        | 200원이상       |
| 축산물 | 닭(1kg, 1마리)        | 10원      | 150원이상       |
|     | 개(18kg, 1마리)       | —        | 500~700원     |
|     | 돼지(60kg, 1마리)      | —        | 1,380~1,500원 |
|     | 토끼(2kg, 1마리)       | —        | 40~50원       |
|     | 염소(25kg, 1마리)      | —        | 1,500~2,000원 |
| 의약품 | 아스피린(1알)           | —        | 50~60전       |
|     | 페니실린(100단위, 1병)    | —        | 15원          |
| 공산품 | 술(1병)              | 2원       | 10~15원       |
|     | 맥주(1리터)            | 50전~1원   | 5,000~8,000원 |
|     | 텔레비전(흑백 1대)        | —        | 5,000원이상     |
|     | 텔레비전(컬라 1대)        | —        | 6,000원       |
|     | 전구(1개)             | 50전      | 10~15원       |
|     | 재봉기(1대)            | 600원     | 2,500원이상     |
| 기 타 | 사금(1그램)            | —        | 900원         |
|     | 순금(1그램)            | —        | 600~1,200원   |
|     | 화목(1차)             | —        | 500원이상       |

주: 양강도 지역, 1994년 기준

자료: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

년에는 17원~25원하였으며, 1994년~95년에는 30원~50원, 1996년에는 다시 85원~100원으로 올랐다. 그 밖에도 옥수수를 비롯하여 식료품과 공산품 등의 값도 매년 30% 이상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암시장의 가격변화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북한 암시장의 가격변화

(단위 : 북한 원)

| 품 목      | 국정가격  | 1992~1993년 | 1994~1995년 | 1996년    |
|----------|-------|------------|------------|----------|
| 쌀(1kg)   | 8전    | 17~ 25원    | 30~ 35원    | 85~100원  |
| 옥수수(1kg) | 6전    | 10원        | 20~ 40원    | 50~ 60원  |
| 닭(1마리)   | 10원   | 90~150원    | 180~300원   | 500~700원 |
| 명태(1마리)  | 4원    | —          | 90원        | 90원      |
| 운동화(1켤레) | 4원    | 20원        | 20~ 50원    | 80~100원  |
| 런닝샤쓰(1장) | 2원    | 30~ 40원    | 50~ 70원    | —        |
| 달러(1달러당) | 2.13원 | 80~100원    | 120~150원   | 195원     |

자료 :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자체작성

중국에서 팔리는 북한 물품의 가격은 북한에서의 가격보다 훨씬 싸다. 그러나 중국 물품이 북한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 변경지역에서의 암거래상들은 북한지역에서 비싼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싸게 팔아도 중국에서 물건을 북한에서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아래 <표 3>과 <표 4>는 몇가지 북한 물품의 중국 지역가격과 중국물품의 북한내 지역의 가격의 차를 잘 나타내고 있다.

〈표 3〉 주요 북한 물품의 중국지역 거래가격

| 품 목     | 북한지역 가격  | 중국지역가격(북한돈 환산) |
|---------|----------|----------------|
| 해삼(1조)  | 500~600원 | 50~60원         |
| 낙지(1조)  | 130~140원 | 13원            |
| 명태(1마리) | 1원       | 11~12원         |
| 다리미(개)  | —        | 4~5원           |
| 여자인조구두  | 20원      | 10원            |
| 어린이 자전거 | 50원      | 30~40원         |
| 외투용기지   | 500원     | 10원            |
| 알미늄 숟   | 300원     | 28원            |

중국 1원=북한 1.05원으로 계산

〈표 4〉 중국 물품의 북한지역 거래가격

| 품 목      | 중국구입가격(북한금액환산) | 북한지역 거래가격 |
|----------|----------------|-----------|
| 칼러 TV(대) | 1,400원         | 30,000원   |
| 양복지(1벌)  | 23원            | 500원      |
| 츄리닝(1벌)  | 18원            | 400원      |
| 사카린(1근)  | 10원            | 500원      |
| 녹음기(대)   | 90~120원        | 2,000원    |
| 재봉틀(대)   | 200원           | 4,000원    |
| 성인자전거(대) | 200원           | 4,000원    |
| 머리수건(장)  | 1원             | 20~30원    |
| 술(맥주 1병) | 1원50원          | 50원       |
| 화장품(크림)  | 1원             | 20~30원    |
| 이불보(1채)  | 30원            | 350원      |

중국 1원=북한 1.05원으로 계산

## 다. 암시장 거래 형태

북한 암시장 거래에는 고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퇴직자와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의 전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는 아예 전문 장사꾼으로 등장하여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다.<sup>28)</sup>

이들은 국경지역에 가서 중국의 상인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북한의 전지역을 돌아 다니며 비싼 값으로 되팔고 있으며, 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방에서 쌀을 사서 쌀이 귀한 함경도 등지에 비싼 값으로 팔고 있다. 여자들은 상점 판매원, 식당 접대원, 호텔 관리원 등 물품 구입이 용이한 인기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업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 여성들은 재봉, 편물 등 가내 봉제업을 해서, 농촌 여성들은 송이버섯, 고사리, 더덕, 두릅 등 산나물 채취해서 어촌여성들은 해삼, 명게, 성개, 조개, 미역 등 해산물 채취해서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이들은 부업을 통해 일반 노동자의 한달 평균 노임(70~80원)의 배에 가까운 15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sup>29)</sup>

나머지 계층의 주민은 주로 직장에 다니면서 텃밭에서 수확하는 작물이나, 직장에서 절취한 물건을 파는 방법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권력을 이용하여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 군, 당의 간부들은 주로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물건을 빼내 암시장에 내다파는 방법으로 장사를 하거나 독립된 주택이나 일정한 유희공간에 지하 돼지우리 등을 만들어 콩기를 찌꺼기, 쌀겨 등의 가축용 사료를 이용해 3~4마리 정도의 돼지나 개를 길러 암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그 밖에도 가족 전체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게 되어 생기는 빈집을 수소문하여 서로 흥정을 통한 암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 1호(방 2, 부엌 1)의 경우 건물 상태에 따라 320원~500원(한화 100만원~17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텃밭(30평)이 있는 가옥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외교관, 학자, 관리인, 기업인 등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에서 획득한 물품을 비싸게 팔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자기, 불상 등 골동품의 밀수출에도 가담하여 개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외화벌이는 주로 해외상사 직원들을 비롯한 외화벌이꾼에 의해 이

28)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 정도라고 한다. 윤웅의 증언, 서재진, 앞의 책, p. 279에서 재인용.

29) 북한문제연구소, 「체험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의 현실」, p. 167.

루어지는데, 이들은 타산이 맞을 때는 한국산 물건도 가리지 않고 구입하여 제3국에 팔아서 판매 차익을 남기거나, 주재국이나 대상국의 금수품을 몰래 구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암시장 거래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위해 절도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평양에는 현재 이들 절도품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개상까지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장마당에 대기하고 있다가 평소 내통하는 상습 절도범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처분한 뒤 6:4의 비율로 나누어 먹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 당국이 직접 암거래에 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사와 대마초는 물론 양귀비까지도 대량 생산하여 밀매하고 있다. 강원도 문천군 고원지대에는 2,000평 규모의 뱀 사육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함경남도 고원군 ‘외화벌이 사업소’에는 3만평 규모의 양귀비 재배 농장이 있다. 그 주변에는 옥수수등 키 큰 작물을 심어 위장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천군 일대의 1만5천평 규모의 양귀비 농장을 비롯 북한 전역 4~5곳에서 아편을 대량 생산하여 외국에 밀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민시장의 경우 종전에는 보통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였으나 최근에는 밤9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밤에는 주로 역대합실이나 역앞광장, 또는 김일성·김정일 우상 상징물 주변에 장이 서고 있다. 이런 곳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조명이 밝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암시장 거래는 현재 북한 주민이나 정부 당국에 있어서까지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암시장 거래는 모두 공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에서의 사적 영역 확대를 의미한다.

## 라. 암시장 거래규모

북한 암시장의 거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20~30명, 많아야 50명쯤 시장 어귀에서 농산품을 팔았으나 요즘은 좌판을 벌여놓은 장사꾼이 2백~3백명이나 돼 걸터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라고 한다.<sup>30)</sup>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동에 위치한 송신시장<sup>31)</sup>은 장이 열리면 시장내 뿐만 아니라 시장밖 3백미터까지도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이며 그 수는 대개 1천명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의 최대시장은 청진의 수남시장이다. 암시장의 확대현상은 대도시에도 그치지 않고 군소재지를 포함, 어디를 가나 사람이 모일만한 곳에서는 장터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암시장 규모는 북한 통계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파악이 불가능하나, 단순 유추 방법을 통해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북한에서의 공식부문 물자공급체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생계를 그나마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은 공식부문의 경제가 아닌 지하경제라는 점<sup>33)</sup>에 주목하여 그 규모에 접근할 경우, 북한주민 가구당 적어도 2명 정도가 암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이 노동자 1인당 평균 수입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총가구수를 약 405만<sup>34)</sup>으로 잡아 1가구 1인당 평균 80원의 소득을 지하경제활동을 통해

30) 「중앙일보」, 97.5.21.

31) 평양·원산간 고속도로 입구 송신교 교각 밑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32)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요구되는 지하경제규모의 산출은 국민총생산과 노동량 및 기업체 수 등에 대한 통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수출입, 농업부문 생산을 비롯한 기타 건설 및 수송, 개인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나누어 실제 조사활동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ussian Federation, "Hidden Economy Indicators in the National Accounts of the Russian Federation," *Joint ECE/Eurostat/OECD Meeting on National Accounts* (Geneva, 30 April-3 May 1996) 참조.

33)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 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6.

34) 통일원, 「남북한 사회·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1992).

확보하고 있다고 유추할 경우, 암시장 거래 규모는 총 6억4,800만원 정도로 미화 공식환율로 환산할 경우에는 총 3억1,609만달러가 된다.<sup>35)</sup> 이와 같은 암시장 거래 규모는 북한 국민총생산 223억(1995년)달러의 1.5%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는 북한 무역은행 중앙통계국이 최근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북한 GNP의 수치(52억달러)에 대비할 경우, 약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만,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유엔 분담금의 하향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 957달러는 북한의 경제현실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감안할 경우 암시장 규모는 전체 국민소득의 약 3~4%에는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sup>36)</sup> 이 규모는 절대적인 액수로는 비록 작지만 북한 주민에게 있어 생계 유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의 사교육비가 남한 전체 국민소득의 약 2.2%<sup>37)</sup>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국민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암시장 거래의 규모가 전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 IV. 북한 암시장의 역할과 파급효과

### 1. 북한 암시장의 기능과 역할

북한 암시장 거래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35) 공식환율은 미화 1달러 당 2.05 북한원을 적용.

36) 여기에는 생산분야 및 금융분야의 경제활동을 지하경제에 포함시킬 경우 그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37) 「조선일보」, 1997. 6.16.

인다.

첫째, 암시장 거래는 우선 제한적이거나 자원을 재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암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이 대량생산과 대량수요에 의한 것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물물교환 형태를 동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결정기제와 같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경제 활동의 원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존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은 크게 낮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 북한 주민의 생계는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거래, 밀수 절도, 횡령 등을 통한 암시장 거래는 공식경제부문에서 유출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자원이 공식 배급경로를 통해 배분되지 않고 불법적인 경로에 의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의한 계획경제부문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자원배분이 확대될 경우, 계획부문의 투자재원을 감소시켜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각종 상거래 등의 미신고, 대외무역의 축소보고 또는 보고누락, 직장 물자의 절취 또는 합법을 가장한 횡령 등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계획부문의 국가예산투자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sup>39)</sup>

셋째, 암시장 거래의 확대는 공식부문 생산물의 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농민시장 가격을 더 크게 상승시키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지하경제부문에 가담하지 못해 소득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이 암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는 감소되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주민 전

38) 전홍택은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기적 효과로는 계획부문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소비재 부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홍택, 앞의 논문. p. 60ff.

39) 앞의 논문, p. 60f.

체 소득구조상의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화벌이꾼이나 밀 무역 행위를 하는 자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큰 소득을 얻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sup>40)</sup>

넷째, 북한 암시장 거래의 확대와 다양화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적 가격결정 기제에 대해 익숙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활동과 역할여부에 따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경제활동 여하에 따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경제의 시장경제화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북한 암시장의 파급효과

### 가. 사회적 부정·부패 현상의 심화

북한의 암시장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현상을 유발·심화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암시장 거래에 필요한 공공물자의 횡령이 심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당·정 고위직 관료들의 횡령은 공적 사업비를 불법지출하거나, 자기 산하 행정 및 경제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은근히 부추기는 태도를 취하기까지 한다. 이 경우 행정 및 경제관료들은 당·정관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유리하며, 만약 비리가 노출되더라도 후원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패 개입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 밖의 행정 관료들은 암거래용 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횡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간부들이 담합하여 쌀과 같은 주곡을 빼내거나, 유통분야에 관여하는 관료가 배급품이나 각종 자재를 빼돌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40) 일본차나 벤츠 등의 중고차를 밀수, 중국에 다시 밀수출하며, 국가에 보고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중고차를 사서 중국에 넘겨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뇌물은 모든 계층에 만연되어 있다. 기업소 또는 관공서 등의 직장 내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일탈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얻기 위해 상하위직간에 광범위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주택취득, 대학입학, 노동당 가입, 여행허가 취득을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sup>41)</sup>

암시장 거래의 지하경제와 북한 공적 사회의 부패는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암시장 거래의 확대는 사회적인 부패를 더욱 더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패는 이미 체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측면도 있다.<sup>42)</sup>

이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횡령과 횡령된 물품의 암거래는 북한을 고루 못사는 사회가 아닌, 신분제 따라 빈부격차가 큰 사회로 만들며, 특히 관료사회의 부패는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을 지속적으로 잠식함으로써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부패 구조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권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결국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sup>43)</sup>

### 3. 개인주의·물질주의의 만연

북한 사회에 만연된 암시장은 주민 개별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우선 공식부문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있어 아주 소극적이다. 일을 열심히 하나 게을리 하나 배급량은 같다. 북한 주민에게는 모든 인민이 똑같이 동원되어 농사를 지어도 자기 농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의껏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가치로 바뀌어 공적인 이익은 소홀히

41) 정덕성, 「북녘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p. 113ff.

42) 북한 이탈 주민 조명철의 증언.

43)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76.

하고 사적인 이익을 더 강하게 추구하려고 하되, 이 과정에서 각가지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국가를 위한 일은 게을리하고 사적이익 추구에 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개인주의적 행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sup>44)</sup>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집단주의를 더 강하게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주의가 매우 심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존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공적부문의 인력투입을 억제함으로써 이 부문의 경제를 더욱 더 위축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당면한 식량난을 극복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식량이나 먹을 거리가 배분되는 곳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항상 연출되고 있기<sup>45)</sup> 때문에 계획경제부문의 식량증대를 위한 인력 투입이 낭비됨으로써 공식부문의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개인주의는 동시에 배급주의를 동반하고 있다. 암시장 거래를 통해 소득을 형성시키게 됨으로써 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돈이 있어야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돈버는 것에 전력투구하게 하는 것이다. 남녀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는 정치적인 토대를 중시했으나 지금은 재산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배급주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46)</sup>

44)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 53.

45) 이는 김정일도 직접 목격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1996년 12월 7일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행한 비밀연설에서 “지금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 넘치고 있으며 인민군대에도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4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289.

#### 4. 체제비판과 경제적 실용주의의 고조

북한의 암시장 거래 확대는 북한 주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인소유의식과 암시장 거래를 통한 개인적 이익의 축적 가능성이 이를 가능케 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이탈한 어느 농업전문가는 그가 이미 북한 체류 당시 농업을 회생시키고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는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생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개인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북한 농업소유제도를 개혁해야 함을 이미 인식하였다고 한다.<sup>46)</sup>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개인 상행위를 할 때 엄벌한다는 포고령이 길거리에 나붙었으나 그것이 이들을 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단속하는 안전원에게 “사회주의를 공고히 지키려면 장사라도 해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들기도 했다고 한다.<sup>47)</sup>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탈북 사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행위의 일단임과 동시에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하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의식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

경제적 실용주의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식이다. 실용주의적 행위는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든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면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행위까지도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7) 이민복의 증언.

48) 북한 이탈주민 정순영의 증언.

## V. 암시장 거래와 북한경제의 시장화 가능성

북한 주민 개개인은 현재 공적 부문의 경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경제의 공식부문의 비중을 점점 더 작아지게 하는 반면,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암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더 커지고 다양화될 것이며, 북한 공식부문의 경제성장은 점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sup>49)</sup>

이와 같은 북한의 사적 경제 영역의 확대와 공식부문의 약화는 북한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한 지하경제의 확산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식 경제개혁과 같은 체제전환의 길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과 같은 체제전환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암시장 거래의 확산이 북한의 배급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북한 당국도 현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sup>50)</sup>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견해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북한 내의 '변화조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51)</sup> 다시 말해 북한의 제2경제분야라고 할 수 있는 1984년 8월부터 시작된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결과물이 국가유통망이 아닌 직매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는 점이나, 90년대에 들어 열리는 농민시장의 일일 시장화와 곡물 및 공산품 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49) 북한에는 이미 군사부문을 제외한 경제의 공식부문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북한 당국도 이를 오래 전부터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50) 동용승, "암시장의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 60호, 1997. 5. p. 58.

51) H.S. Lee, "The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Korea Observers*, vol. XXIII (1992).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분조에게 부과된 곡물생산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분조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이 북한의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의 전조라는 것이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은 협동농장의 말단 작업단위인 분조 관리제의 변경, 분조의 구성원 수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분조단위의 생산목표를 현실화하고 목표 초과 생산분에 대한 처분을 분조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화의 전조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분조도급제」가 기존의 「분조관리제」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sup>52)</sup>

분조관리제는 그 농업관리 형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취지는 다른 데 있었다. 북한은 농업지도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협동농장의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협동농장에 분조관리제를 도입·시행하였다.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생산단위인 분조에 토지나 농기구 등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고정시켜 국가계획에 준하여 분조에 단위당 연간 생산계획과 노동력 투하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수행정도 및 생산량을 연결시켜 분조성원의 가동노동일을 재평가하여 분배하는 협동농장의 생산조직 및 분배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조에 일정한 토지와 농기구 및 노동력을 고정시키고, 분배를 직접 그 토지의 생산성과 연결시킴으로써 농업생산에 대한 농민의 책임과 물질적 관심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분조관리제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다.

첫째, 농업생산에는 노동기간과 생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

52) 분조관리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동력,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같이 일하여 수확물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초과 생산할 경우에만 성과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조도급제는 정액 소작제 방식으로 한 단위의 분조가 협동농장에서 토지사용권을 임대받아서 계획생산분을 제외한 초과분을 되돌려받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초과 전량을 현물로 분배받아 농민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분조의 구성원도 2~3가구, 10명 미만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20명 내외의 규모보다는 결속력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있어 생산의 최종성과와 관련하여 노동일을 재평가할 필요성 때문에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둘째, 분조관리제 시행은 협동농장의 생산조직을 농업생산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사회주의 농업생산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농업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옹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 규모의 토지에 노동력을 고정시키는 것이 농작업에 대한 농민의 책임과 자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농업이 소수의 관리요원으로 는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책임과 자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분조관리제를 통해 일정한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 및 노동력을 고정시켜 분조성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작업에 대한 농민의 책임과 자각이 높아질 수 있으며, 토지나 농기구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셋째, 분조관리제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농장원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 분조관리제는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농민의 혁명화, 노동자 계급화를 촉진하는 데 극히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농업제도의 본질적 특징중의 하나는 ‘착취에서 해방된 농민이 집단과 자기 자신을 위해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각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 사상사업을 강화해야 했다. 분조관리제는 이러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생산의 단위인 분조를 통해 직접 결합시킴으로써 농민들 속에서 집단주의 정신과 공산주의적 기풍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다.<sup>53)</sup>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분조관리제가 그 관리형태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화와는 무관하다. 이는 그 도입의 목적이 시장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분조도급제」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도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생산의 계획량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53) 고승효, 「북한경제입문」, 양재성 역 (서울: 평민사, 1993), p. 213.

영농에 필요한 자재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일할 의욕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정경영책임제 또는 개인농제도로 발전되지 않고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화로 보거나 향후 시장경제체제로의 필연적 진전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획경제를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자원과 생산요소의 배분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시에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장경제체제가 운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경제활동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이 경제운용의 기제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내 북한이 스스로 그와 같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 VI. 결 론

암시장 거래의 만연이 북한의 붕괴를 유발시킬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 7단계의 시나리오를 작성,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의 붕괴과정은 첫번째 「자원고갈」로 인해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식량과 에너지, 전력공급 등이 마비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두번째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군부 등 필요한 부문에 공급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단계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지방독립」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거의 마비되는 단계를 지칭하며 여기에서는 암시장과 밀수 등 경제범죄가 성행하고 지방관리들 조차 업무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네번째 단계 이후부터는 「내부탄압」으로 주민들의 대거 탈출이 이루어지고 대량 검거, 숙청, 통제 등 억압과 통제강화, 이것이 다시 밀수

로부터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붕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sup>54)</sup>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 국가의 붕괴는 동독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국가와 같이 강력한 정치적인 힘에 더 크게 의존되기 쉽다. 지하경제가 북한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인식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체제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비록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북한 주민의 조직력과 결단력에 달려있는데, 현재와 같은 철권통치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암시장 거래의 확대를 통한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와 경제적 자율화가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제변화를 촉진시키거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 부족을 완화하여 오히려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암시장의 확대가 아닌 다른 정치사회적 이유, 예를 들어 어떤 외부로부터 내부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민들이 잘 활용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일시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상태하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발적 힘만으로는 체제붕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첫째,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 거래를 통해 비록 다른 가치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주민들의 정치행위는 경제행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국가의 공식적 요구에 더 밀착되어 있다.<sup>55)</sup> 경제와 정치의 행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정치적 순응이 주민들의 물질적 이익과 상충하기 보다는 오히려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성공은 육체적 부담과 전문기술, 경험을 요구하나 정치적 순응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당국에게

54) 「동아일보」, 1997.6.28 및 「월간조선」, 1996년 5월호, pp. 364~381 참조.

55) 서재진, 앞의 책, p. 33.

경제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게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통해 경제적 자율화가 증대될 수 있지만 그것이 체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북한 당국이 이를 체제변화의 계기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당국은 암시장 거래의 확대에 따른 자율화의 신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독재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정치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복종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 논리를 동유럽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구동유럽 국가가 보였던 체제기반의 취약성이나, 지도자 중심의 허구적 단결, 외견적 체제 순응<sup>56)</sup>과는 다른 체제기반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 사회주의권에 서의 외양적 순종이 점차로 조직적 저항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혁명적 체제변화를 야기하여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를 초래한 경우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의 붕괴는 오히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진 모순과 비효율성, 이념적 한계와 비합리적 경제정책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북한에는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의 이중구조적 현상, 다시말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지하경제부문과 계획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공식부문의 경제가 계속해서 병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시장 거래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인식변화와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북한의 시장화와 체제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

56) 위의 책.